

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관련건의(안)

의안 번호	14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 10월 24일
제안자 : 댐관련대책특별
위원장

1. 주 문

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「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」 계획에 대하여 즉시 중단하고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을 안배 경관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개량 개선하여 관광자원화시키고,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마을광장, 생태공원, 물박물관 등 각종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 낙후된 충청북도의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「대청댐 주변환경 정비사업」이 되길 강력히 건의

2. 제안사유

- 2003년 9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「대청댐 주변 지역 환경정비」 계획은 대청댐 건설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홍보에만 치중되었을 뿐 아니라 대청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충청북도의 주변지역은 보조사업만 계획되고 대전광역시 위주로 사업이 추진 계획임
- 따라서 현재의 「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」 사업을 즉각 중단 백지화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「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」 사업이 되기 위함

-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 관련 -
건 의 문

충청북도의회

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 관련 건의문

존경하는 (국회의장, 국회환경노동위원장, 국회건설교통위원장, 각 정당대표, 국무총리, 건설교통부장관, 환경부장관, 한국수자원공사 사장) 님 !

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걱정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,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」 계획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.

우리 충청북도에는 전국 7개 주요 다목적댐의 유역면적 18,285km² 중 2개댐이 59%(10,782km²)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홍수조절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1980년에 건설한 대청댐은 청원·보은·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·면, 65개 리동에 2,652세대 17,247명의 수불 이재민을 발생하게 하였고, 또 1985년에 완공된 충주댐은 충주시·제천시·단양군 등 3개 시·군 15개 읍면, 114개 리동에 7,105세대 38,663명의 수불 이재민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.

이렇게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수몰지역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가야 하였고 댐 주변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2층 3층의 법적 규제로 생업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또 심한 안개, 과습 등으로 농작물의 감수와 빈발되는 교통사고 등으로 많은 피해를 겪으면서 고달픈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

안타깝게도 대청댐과 충주댐이 완공된 후 현재까지 댐 상류 주민들을 오염자로 몰아 세우고 깨끗한 물을 달라는 목소리만 높았을 뿐 정작 이 지역주민들의 딱한 실정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문제는 소홀히 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2003년 9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「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」 계획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에게 경악과 개탄을 금할 길 없게 하였습니다.

명목은 댐 주변의 낙후된 시설과 경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대청댐이 갖는 호수 및 수변 경관과 함께 댐 공원화를 추진하여 대 국민 서비스 제고하겠다면서

① 대청댐 문화관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1-5번지 내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30평 규모로 건립하고

② 대청댐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「댐좌안광장」 정비사업, 「댐체 및 저수지」 야간조명·음악분수, 「우안전망대」 정비, 기타 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.

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계획에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운운하는 것은 대청댐 건설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

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처사일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댐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며 규탄의 대상이 되기를 자초하였습니다.

더구나 이번 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는 우안 전망대의 경관조립, 주차장 보완, 장애인 램프 사업 등 부대사업만 추진하고 주된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.

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「수몰면적」은 72.8km² 중 71%(51.67km²)를 차지하고 있고, 대전지역은 29%(21.13km²)에 불과하며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총 700.67km² 중 충청북도

이 계획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 도민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

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즉각 중단, 백지화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망대, 등산로, 주차장, 운동장, 광장, 농산물 판매장, 생태공원, 물박물관 등 각종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,

댐 주변지역인 청원군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에 안배하여
낙후된 충청북도의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
키고,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「대청댐 주변지역 환경
정비사업」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대청호 수질을 한층 개선되
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
기를 150만 충청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.

2003년 10월 24일

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